

“문학을 한다는 것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

한강 작가 ‘세계한글작가대회’ 서
‘시와 단편소설 그리고...’ 특별강연
문인·시민 등 전국서 400여명 참석
제주4·3 모티브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역사 속의 일을 그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역사 속의 인간을 들여다본다는 행위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행위라 할 수 있어요.”
한강 작가가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 특별강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소설 세계와 인간의 본질 등에 대해 강연했다.

국제PEN한국본부가 주최하고 광주지역위원회가 행사를 진행하는 이번 작가대회는 국제적인 문학 행사다.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를 주제로 17일 까지 광주문학관을 비롯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등에서 진행된다.
얼마 전 한 소설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3대 문학상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연장에는 전국에서 온 문인을 비롯해 시민들, 관계자들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 작가는 ‘시와 단편소설, 그리고 장편소설을 함께 쓴다는 것’을 주제로 단상을 풀어냈다. 그의 작품은 시적인 문체와 시적인 상황 등이 녹아 있어 어떤 장르에 담아내든 하나의 시로 다가오는 게 특징이다.
이를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꼭 시적인 문장을 쓰기보다 장면들 속에 시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장편소설 속에도 시가 들어 있고 단편소설에도 마찬가지죠.”

였고 나무 뒤편마다 무덤의 봉분이 보였어요. 인공적인 조형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 방치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운동화에 자작자작 물이 흘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바다가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저 바다로 인해 봉분도 쓸려가고 뼈들도 다 쓸려 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왜 이곳에 무덤을 썼을까, 그리고 하루 빨리 저 봉분들을 옮겨야 할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강 소설가가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소설 쓰기과 그 전체 조건인 인간을 알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며 “결국은 인간의 폭력 반대편에 서겠다는 궁극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년이 온다’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과정 등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소설은 80년 5월 18일부터 10일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동호가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다.
한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 한 달 정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증언집을 읽었다”며 “900여 명의 증언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적인 파편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매개로 한 이야기도 꺼냈다.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완성한 이후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한다.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밑동만 남은 나무들이 보

그 꿈을 꾸고 난 후 한 작가는 다음의 이야기로 무엇이 될지 모르는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의외로 시간은 길었다. 이어 그는 드로잉 작품 가운데 손을 끌어 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 아이슬란드의 모지 비석에 그려진 맞잡은 손 그림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았다.
그림들을 통해 “아, 작별하지 않는다구나!”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지나갔다”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별을 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별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그는 소설을 쓰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제주에 방을 얻어놓고, 서울과 오가며 작품을 구성하는 등 창작에 몰입했다.
그는 “제주는 거대한 학살의 공간이며, 이 학살은 제주의 역사학을 넘어 인류가 자행해온 학살들과 연계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8년 초에는 동료 작가와 바다까지 걸어가느라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강연을 끝내며 한 작가는 분명하게 말했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대주제인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에 가장 부합하는 발언으로 다가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상적 형상 ‘이미지 안의 이미지’ 정운학 초대전, 21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전시장에 들어서면 회화는 물론 설치작품, 아크릴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게 된다. 경계를 넘는 창작활동이 작가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미디어아트나 입체적인 조각, 오브제 작업을 할 때도 출발 선상에선 언제나 회화의 시각이 있었습니 다.”
갤러리 벽면에 부착된 문구는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작업을 해도 본질은 회화에 있었다는 말은 목직한 선언문으로 들린다.
정운학 작가의 초대전 ‘이미지 안의 이미지’ 가 오는 21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정 작가는 그동안 회화는 물론 조각, 오브제, 설치 등 매체와 기법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창작세계를 펼쳐왔다. 특히 이번 전시회가 남다른 것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화적인 전시라는

점이다.
벽면에 걸린 회화들은 추상적인 형상을 이미지화한 작품들이다. 추상은 구체성을 초월한다는 의미 일 것이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생명력이 발휘된다.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시각을 토대로 새로운 조형성이 부여되거나 전혀 다른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시장에 출품된 작품들은 대개 찰나의 순간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다수 작품의 제목이 ‘무제’다. 캔버스 위에 아크릴로 그린 작품은 몽탕몽탕한 선들을 배치하거나 심상에 떠오른 선들을 펼쳐놓는 것으로 보인다. 공통점은 자연을 의인화했다는 점이다.
전시실 뒤편에는 50자 감상평을 적는 코너가 있다. 어느 관람객이 남긴 감상문에는 “멀리서 지켜보면 하나하나의 존재의 조각 같기도 가까이서 보

면 단절된 파편 같네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여울들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물다간 기본입니 다”라는 글이 담겨 있다.
김철 어린이는 “작품 속 이미지가 주는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차분해져요”라는 평을 남겼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작가가 풀어낸 감각은 재현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품어온 영감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관람객들은 저마다 감각에 따라 즐겁게 감상하고 해석을 하는 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작가는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 슈테델슈레를 졸업했으며 ‘존재의 빛’ 전, ‘안타노미’ 전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2014년 광주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을 역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미지 안의 이미지’ 전시 열리고 있는 전시실 풍경.



광주가야금연주단이 ‘성금련류 가야금산조’를 4대 가야금으로 중주하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광주가야금연주단 ‘산조와 민요의 어울림’

국립남도국악원, 18일 진악당

우리 전통음악인 민요와 산조가 아름다운 선율로 만나 조화를 이룬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광주가야금연주단 초청공연 ‘산조와 민요의 어울림’을 오는 18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개최한다.
가야금 4중주곡 ‘성금련류 가야금산조’ 가락을 올린다. 이어 경기민요 ‘오봉산 타령’, 경상도민요 ‘울산가씨’ 등 민요 외에도 동부민요 ‘옹헤야, 아리랑을 섞어내 재구성한 ‘아리랑 놀이’ 등을 25현 가야금의 화음으로 들려준다.
6대 가야금을 연주하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도 레퍼토리에 있다. 연주단 초대 단장 성애순(전 전남대 교수)이 이수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가야금연주단이 연주를 한다.

이외 25현 가야금으로 화려하게 연주하는 ‘김희조 주제에 의한 12변주곡’ 등도 예정돼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 김갑수 과장은 “이번 공연은 전통 음악과 창작 음악의 그 중간쯤에 속하는 곡들로 채워져 있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요와 산조의 조화를 만끽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가야금연주단(이하 연주단)은 1989년 10월 가야금연주회를 발족한 뒤 1992년 광주가야금연주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창립했다. 그동안 ‘시계탑’, ‘가야금 3중주 강강술래 변주곡’, ‘3중주를 위한 17현 단모리 등 연주회’ 등 앨범을 발매해 왔으며 테마가 있는 정기연주회를 매년 선보여 지역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무료 공연.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